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35 / 2008.9.12

□ EU-AU, 에너지부문 협력 강화

- EU와 아프리카연합(AU)은 에티오피아의 수도 Addis-Abeba에서 에너지부문의 공동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함.
- AU의 인프라·에너지담당 집행위원, EU의 개발담당 집행위원과 에너지담당 집행위원은 EU와 AU의 에너지부문 협력을 위한 첫 번째 행동계획의 실행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함.
- 상기 공동성명은 10월 1일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승인될 예정임.
- EU와 AU는 아프리카 역내 및 유럽-아프리카의 에너지부문 연계 강화, 신재생에너지부문의 협력 프로그램 실행 및 추진방법 구상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공동성명은 에너지효율 개선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대책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유럽 국가들과 민간기업이 아프리카의 에너지공급과 수요부문에 대한 투자확대를 촉구함.
- EU는 아프리카에 에너지부문의 기술전수 및 기술연구 시행, 여론조성 등을 위하여 '07~'11년 중 €5,500만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음.
- AU 집행위는 이와 같은 EU의 ~~對~~아프리카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의지를 재표명함.

(Europétrole, 2008.9.9)

NEWS

- EU-AU, 에너지부문 협력 강화
- 일본, 태양광발전 설비도입 중소기업 지원확대
- 일본, 자발적참가 배출권거래제로 CO₂ 28만 톤 감축
- 일본, CDM 적용대상 확대 방침
- GE Hitachi, 세계 원자력부문에 \$600억 투자 계획
- 인도, 원자력발전 Rs 1.2조 투자 기대
- '09년 인도네시아 Minas 및 Duri원유생산량 감소전망
- 호주 Origin Energy, 미 ConocoPhillips와 LNG 합작개발
- 콜롬비아, Arrayán-1 유전에서 원유 발견
- 멕시코, 바이오디젤에 \$8,300만 투자
- 우루과이, '08-'30 에너지정책계획 수립
- 이라크, 10월 런던에서 석유·가스전 로드쇼 개최
- Saudi Aramco, Khursaniyah 유전 원유생산 시작
- 이라크, 8월 석유수출 7월보다 소폭 감소
- 시리아와 프랑스Total, 석유·가스 생산계약 체결
- 이란-러시아, 이란의 원자력 발전시설 가동 착수
- 가스프롬, \$942억 가스플랜트 건설 추진
- 북해 West Franklin 유전의 추정매장량 증대
- 영국, 프랑스 및 벨기에와 국가간 송전망 확대 협의
- 프랑스, 면세가구 대상 동절기 유류보조금 €200로 상향조정
- 독일, 온실가스 무배출 화력발전소 시범가동
- 독일, 일부기업에 탄소배출권 무상분배 요구
- 스페인,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 모리셔스의 파력발전 계획
- 세르비아 의회, 러시아와의 에너지협력 승인
- 아프리카의 에너지부문 협력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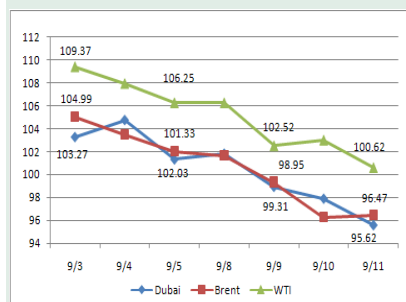
ANALYSIS

- OPEC, 9월 정례회담에서 생산량감축 결정
- 이라크, Shell에 Basra에서의 수반가스 포집 승인
- 베네수엘라 PDVSA의 LNG수출 계획과 최근 동향
- 프랑스 GDF Suez의 최근 사업동향
- 스페인, Castilla La Mancha州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력공급

REPORT

-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 전망 보고서

Oil Prices (Spot)





ASIA, AMERICA & MIDDLE EAST

□ 일본, 태양광발전 설비도입 중소기업 대상 지원확대

- 일본 경제산업성은 태양광발전 설비를 도입하는 전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임.
 - '08년 예산중 약 ¥50억을 책정해서 소규모 사무소 및 공장 등에서도 보조금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공모할 예정임.
- 현재 일본은 중소기업의 태양광발전 설비 및 태양열 온수기 설치비용의 최대 1/3을 보조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요건으로는 태양광발전 설비는 50kW 이상, 태양열 온수기는 100㎡ 이상 설비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이 요건을 태양광발전 설비는 10kW 이상, 태양열 온수기는 20㎡ 이상으로 각각 하향조정할 예정임.

(賣讀新聞, 2008.9.7)

□ 일본, 자발적 참가 배출권거래제로 CO₂ 28만 톤 감축

- 일본 환경성은 9일 '06년~'08년 8월까지 실시한 제2차 자발적 참가 배출권거래제를 통해서 약 28만 톤의 CO₂를 감축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약 5만 세대의 연간 CO₂ 배출량에 해당함.
 - 동 제도는 환경성이 '05년에 도입하였는데 제2차는 Rengo 및 TOTO 등 61개의 기업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CO₂ 배출량을 '03~'05년 대비 19% 감축이 목표였지만 실제로는 25% 감축을 달성하였음.
- 목표 감축량에서 초과한 분량을 배출범위로서 매매한 건수는 제1차보다 27건이 증가해서 51건의 거래가 성립하였는데 이에 따른 감축량은 CO₂ 환산 5.5만 톤으로 제1차 때의 8.3만 톤보다 감소하였음.
 - CO₂ 1톤 당 평균 거래가격은 약 ¥1,250으로 제1차와 동일한 수준임.



(日本經濟新聞, 2008.9.9)

□ 일본, CDM 적용대상 확대 방침

- 일본 정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국내 CDM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 현재는 중소 제조업이 중심이지만 농림업과 운송업에도 대상으로 추가될 예정임.
- '08년 10월에 시행하는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이 되는 국내 CDM은 대기업이 자금 및 기술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배출감축에 협력하는 제도임.

(實讀新聞, 2008.9.8)

□ GE Hitachi, 세계 원자력부문에 \$600억 투자 계획

- GE Hitachi는 '16~'30년까지 10개 이상의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총 \$600억을 투자할 계획임.
- GE Hitachi의 주력 시장은 미국 및 일본, 대만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원자력발전소를 운영 중이며, 중국과 대만에 3개의 원자로를 건설 중임.
- 현재 터키 및 영국, UAE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음.
- 터키에서는 1,500MW 규모의 개량비등수형 원자로(ABWR, Advanced Boiling Water Reactor) 2~3기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 중임.
- 영국에 대한 계획은 구체화된 바 없으나, 영국은 최근 강력한 원자력 발전 추진계획을 발표하여 시장성이 큰 국가임을 주목하고 있음.

(Viewswire, 2008.9.8)

□ 인도, 원자력발전에 Rs 1.2조 투자 기대

- 인도는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이 원자력 거래 금지를 해제한 후 18~20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향후 15년 내에 건설할 계획임.
- ※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NSG): 핵물질의 확산 및 산업용장비의 거래가 핵무기개발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78년 설립된 국제수



출통제 체제로서 핵연료와 기술을 수출하는 45개 국가로 구성됨.

- NSG는 지난 6일 인도에 대한 원자력 거래 제재조치를 해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승인함.
- 인도경제인협회는 NSG의 결정이 향후 15년 내에 Rs(루피) 500억~600억 규모의 원자로 18~20개의 건설로 Rs 1.2조 규모의 투자사업으로 평가함.
- 현재 인도는 4,120MW 용량의 원자력발전소 17기를 가동하고 있으며, 3,160MW 용량의 원자로 6기를 건설하고 있음.

(The Economic Times, 2008.9.8)

□ '09년 인도네시아의 Minas 및 Duri 원유 생산량 감소 전망

- 중앙 수마트라섬에서 Chevron Pacific Indonesia가 생산하는 석유와 콘덴세이트의 양이 '09년 평균 38.2만b/d로 '08년보다 12.5% 감소될 것으로 전망됨.
- 생산량 감소의 주원인은 유전의 노후화 때문으로 보인다고 인도네시아 자원에너지부가 밝힘.
- 동 사는 Duri 원유와 Minas로 알려진 Sumatra Light 원유를 중앙 수마트라의 80여개 유전에서 생산해왔으며, '90년도 말부터 점점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음.
- 동 사는 '08년 1년간 생산량은 폭우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40.5만b/d로 예상함.
- Chevron은 '08년 평균 생산량 40.3만b/d로 목표를 세우고자 하였으나, 석유 규제기관인 BPMigas가 41.4만b/d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 동 사는 BPMigas의 목표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하여 '08년 중앙 수마트라에서 750개의 생산유정과 8개의 탐사유정을 시추할 계획임.
- Chevron은 '07년 Duri와 Minas 유전에서 42.6만b/d를 생산했음.
- '07년 수마트라 및 동 칼리만탄 지역의 유전을 개발하는데 \$8억을 투자했으며, 향후 3~4년 동안 중앙 수마트라의 North Duri 유전개발을 위하여 \$10억을 투자할 계획임.



- BPMigas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8월 원유 생산량은 평균 863,724b/d로 7월 863,977b/d보다 약간 밑돌았음.

(Platts, 2008.9.8)

□ 호주 Origin Energy, 미 ConocoPhillips와 LNG 합작 개발

- 호주의 Origin Energy는 미국 ConocoPhillips가 퀸즈랜드州의 석탄층메탄 가스(Coal Bed Methane: CBM) 매장지에서 가스를 추출하여, LNG를 생산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분 50%에 대하여 \$80억을 지불하는데 합의함.
 - ConocoPhillips는 우선 \$50억을 합작 사업에 투자하고 \$9.4억의 비용을 Origin에 지불할 예정이며, 향후 4차례에 걸쳐 \$5억씩 추가비용을 지불할 것임.
 - 양 사는 '10년 말에 최종적으로 생산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며, 개발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14년 생산개시와 함께 연간 350만 톤을 생산하는 2개의 LNG 트레인이 포함될 예정임.
- Origin Energy는 합작사업의 CBM 개발을 담당하며, 호주 다윈지역에서 이미 LNG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ConocoPhillips는 액화시설(liquefaction plant)을 운영할 예정임.

(World News, 2008.9.8)

□ 콜롬비아, Arrayán-1 유정에서 원유 발견

- 콜롬비아 국영 석유기업 Ecopetrol은 지난 5월 Magdalena Superior 분지의 Brisas-Lomalarga-Dina-Potrillo 광구, Arrayán-1 유정 3,642m 시추 지점에서 860b/d의 API 29등급의 원유와 4,955m³/d의 천연가스를 시험 생산하였음.
 - Ecopetrol은 향후 몇 개월간 실제 매장량에 대한 최종 확인을 위한 시험 탐사를 계속할 예정임.
- Ecopetrol은 Huila州의 10,184ha에 달하는 동 광구에 대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Business News Americas, 2008.9.8)

□ 멕시코, 바이오디젤에 \$8,300만 투자

- 멕시코 정부는 바이오디젤 개발사업에 \$8,300만을 투자하겠다고 밝힘.
 - Calderon 멕시코 대통령은 곡물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는 바이오디젤 및 에탄올의 생산을 위해 10만ha의 원시림 조성 사업을 추진키로 함.
 - 산림자원의 보호와 함께 생산성을 증대시켜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상생정책에 박차를 가하기로 함.
- 멕시코는 바이오연료 개발 추진을 위한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옥수수 및 다른 곡물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정책 추진이 부진한 상태에 있었음.

(Business News Americas, 2008.9.8)

□ 우루과이, '08-'30 에너지정책계획 수립

- Tabare Vazquez 우루과이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산 가스수입으로 인한 에너지문제들을 해결키 위해 '08-'30 에너지정책계획 수립내용을 발표함.
 - 우루과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산 가스수입에만 의존한 현재 여건에서 가스 의존도 감소 및 아르헨티나산 수입의존도 감축을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발전 도입을 통한 에너지공급의 다원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음.
- 우루과이 대통령은 최근 이스라엘, 스위스, 한국을 순방하면서 원자력발전 건설 필요성을 역설하였으며 상기 국가들에서 원자력발전소 설립을 위한 지원을 약속받음.
 - 우루과이는 '97년 전력시장에 관한 법 규정에 원자력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시킨 바 있음.
 - 우루과이 에너지부 Daniel Martinez 장관은 상기 조항을 폐지하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정책계획 자체가 원자력발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광범위한 문제이므로 에너지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함.

- 우루과이의 에너지정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10년에 2개의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계획하고 있음.
- 우루과이 내 에너지 독립 및 자급을 위한 LNG의 기화설비 구축, 기화선박 입항하역을 위한 항만 공사, 석유·가스 및 우라늄 등 비재래에너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활용 및 오일세일 탐사 등이 에너지정책에 포함됨.
- 또 해외에서의 원유탐사를 위한 석유기업과의 협력, 국영 석유기업 Ancap의 정제시설 재정비 및 탈황설비 설치도 포함됨.
-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장기대책을 수립하고 수력, 차세대 바이오연료 개발을 위한 대체기술에 대한 모니터링, 산업전반에 걸친 에너지 공급 및 지역 간 에너지공급 증대계획도 포함되어 있음.

(lanacion, 2008.9.8)

□ 이라크, 10월 런던에서 석유·가스전 로드쇼 개최

- 이라크 석유부는 10월 13일 런던에서 세계 35개 주요 석유기업들에게 이라크의 1차 입찰 정보 및 상세 내용을 제공하는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임.
- 이라크는 4월에 1차 입찰에 지원했던 120개사 중에서 35개사를 우선적격으로 지정했고, 다른 기업들은 차기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런던 로드쇼에 초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들은 BP, Chevron, Exxon Mobil, Total, Royal Dutch Shell 등임.
- 1차에서 발주한 8개 유전은 주요 석유유전인 북부의 Kirkuk, Bai Hassan, 남부의 Rumaila, Zubair, West Qurna Phase 1, Missan 유전(Buzurgan, Fauqa 및 Abu Ghirab), 서부의 Akkas 가스전 및 동부의 Mansouria 가스전임.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8.9.8)

□ Saudi Aramco, Khursaniyah 유전 원유생산 시작



- Saudi Aramco는 Khursaniyah 유전에서 최근 원유생산을 개시했고, 생산량은 50만b/d에 달함.
 - Saudi Aramco는 생산시설 가동으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율은 각 시설의 생산목표치별로 다르다고 Saudi Arabia의 Arab News에 밝힘.
 - Khursaniyah 유전의 원유생산은 '07년 12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가스처리시설 건설과정에서 국제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어 왔음.
- 사우디는 '09년까지 석유생산능력 1,250만b/d, 정유능력 600만b/d의 목표달성을 위해 \$900억을 투자할 것으로 전망됨.

(OIL&GAS JOURNAL, 2008.9.5)

□ 이라크, 8월 석유수출 7월보다 소폭 감소

- 이라크는 8월에 북부와 남부유전에서 253.8만b/d를 생산하였는데 이는 7월보다 3.6만b/d 낮은 수준임. 수출도 전월대비 13.9만b/d 감소함.
 - 북부유전의 생산량은 7월에 61.9만b/d, 8월에 60만b/d로 4월 64.1만b/d보다 적은 수치를 보임.
 - 남부유전의 8월 생산량은 7월 195.5만b/d에서 약간 줄어든 193.8만b/d임.
 - 이라크의 8월 총 수출량은 175.6만b/d로 7월보다 13.9만b/d 감소했는데, 북부유전에서 7월 38.4만b/d에서 8월 30.7만b/d로, 남부유전에서 7월 151.1만b/d에서 8월 144.9만b/d로 감소함.
- Kirkuk 유전이 있는 북부유전에서의 생산과 수출은 '07년 9월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이는 터키로의 수출라인을 포함하고 있는 북부 송유관 보호 및 송유관 배제지역 설치에 관한 보안 조치와, Kirkuk 지역과 Baiji 정제시설 사이에 있는 송유관 보호를 위한 그 지역 수니파의 협조에 의한 것임.
 - 북부유전에서 Ceyhan에 있는 터키 유류집하장에서의 수출은 총 951.5만 배럴이며, 그 중 817.2만 배럴은 10대의 유조선에 선적하고, 134.3만 배럴은 송유관을 통해 Ceyhan에서 Kirikkalle에 있는 터키 정유시설로



보내짐.

- 8월에 Al-Basrah 유류집하장에서 선적한 물량은 유조선 27대 분량 4,491.6만 배럴임.
- 8월의 이라크 국내 정유시설 및 발전소용 공급량은 북부유전에서 7월 27.4만b/d에서 8월 26.3만b/d로 감소, 남부유전에서 7월 29.4만b/d에서 8월 30.1만b/d로 증가하여, 총 국내공급량은 7월 56.8만b/d에서 8월 56.4만b/d로 약간 감소함.
- 남부지역에서 산출된 물량 중에서 공식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물량은 7월 14.5만b/d, 8월 18.8만b/d로 추정됨.
- 이 물량은 생산량과 국내 보유량 감소분 조정량에서 총 수출량과 국내 공급량 합의 차이로 산출된 수치임.
- 이와 같은 누락 물량은 이라크, UN 및 미국의 여러 감시단이 제기한 이라크 내부의 부패와 석유산업에서의 밀수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

이라크 7·8월 석유 생산, 수출 및 국내 공급량

(단위: b/d)

구 분		북 부	남 부	총 계
생 산	7월	61.9만	195.5만	257.4만
	8월	60만	193.8만	253.8만
	증감	-1.9만	-1.7만	-3.6만
수 출	7월	38.4만	151.1만	189.5만
	8월	30.7만	144.9만	175.6만
	증감	-7.7만	-6.2만	-13.9만
국내공급	7월	27.4만	29.4만	56.8만
	8월	26.3만	30.1만	56.4만
	증감	-1.1만	0.7만	-0.4만
비공식물량	7월	-	14.5만	-
	8월	-	18.8만	-

(Platts, 2008.9.8)

□ 시리아, 프랑스 Total과 3개의 석유·가스 생산계약 체결

- Total은 시리아와 석유 및 가스 생산과 관련하여 3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시리아에서의 장기 잔류 입지를 공고히 함.

- 첫 번째 계약은 Total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합작투자회사인 Deir Ezzor Petroleum Co.를 통해 Total과 Syrian Petroleum Co.(SPC)이 공동 운영하는 Deir Ezzor 석유생산 허가권을 갱신한 것임.
 - Deir Ezzor 생산허가권은 계약을 10년 연장하여 '21년 만료될 예정인데, Jafra, Qahar 및 Atalla 유전에서 생산을 연장하는 것임.
 - 이 계약은 '88년에 체결된 것으로 Total에게 Deir Ezzor 지역에서 3만 b/d를 생산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며, 양측의 논의는 4월 초부터 진행되어 왔음.
- 두 번째 계약은 Tabiyeh 가스전에서의 생산을 증가시킴으로써 Deir Ezzor 시설로부터 시리아 국내시장으로의 가스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계약인데, 이를 통해 Total은 시리아의 가스산업에 참여하게 됨.
- 세 번째 계약은 SPC와 Syrian Gas Co.와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관계를 수립한다는 양해각서임.

(OIL&GAS JOURNAL, 2008.9.4, Views Wire, 2008.9.5)

□ 이란-러시아, 이란의 원자력 발전시설 가동 착수

- 이란 최초의 원자력 발전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러시아 국영기업은 원자로의 가동을 위한 마지막 단계에 진입했다고 밝힘.
 - Atomstroieksport의 Reznikov사장은 Bushehr 발전시설을 금년 말 가동 예정으로 "철회할 수 없는" 단계에 들어갈 것이라고 함.
 - Atomstroieksport의 대변인은 이번 달 러시아와 이란의 핵 고위관리 회담이 끝난 후 가동개시일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힘.
- 이란은 러시아에 1,000MW급 경수로 건설을 위해 \$10억 이상을 지불하고 있음.
 - 건설은 테헤란과 모스크바 사이의 지급문제와 핵연료 수송일정에 관한 이견차이로 중단되어 있었음.



-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두려워하여 러시아가 Bushehr 발전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비난해왔음.
-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사용될 지도 모르는 원료를 추출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사용한 핵연료를 러시아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 미국은 입장을 누그러뜨림.
- 또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경제제재 결의안에서 Bushehr 발전소를 언급한 부분을 삭제하기로 합의함.

(Views Wire, 2008.9.9)

EUROPE & AFRICA

□ 가스프롬, \$942억 규모의 가스플랜트 건설 추진

- 가스프롬은 '09년 진행될 가스플랜트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였음.
- 동 프로젝트는 향후 22년간 동시베리아의 가스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규모는 \$942억으로 추정됨.
- 동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연간 프로판-부탄 150만 톤 및 석유·가스 90만 톤, 폴리올레핀즈 4.6만 톤과 100만 톤 이상의 석유화학제품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됨.
- 가스플랜트는 동시베리아의 Sakha 지역에 건설될 예정이며, 투자 및 기술 도입을 위해 가스프롬은 외국 기업과의 합작가능성을 시사하였음.
- 가스프롬은 '09년 내에 플랜트 부지를 선정하고 국내·외 유통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가스플랜트의 가동시기는 동 지역 가스전의 생산시기에 따라 변동적이거나, '11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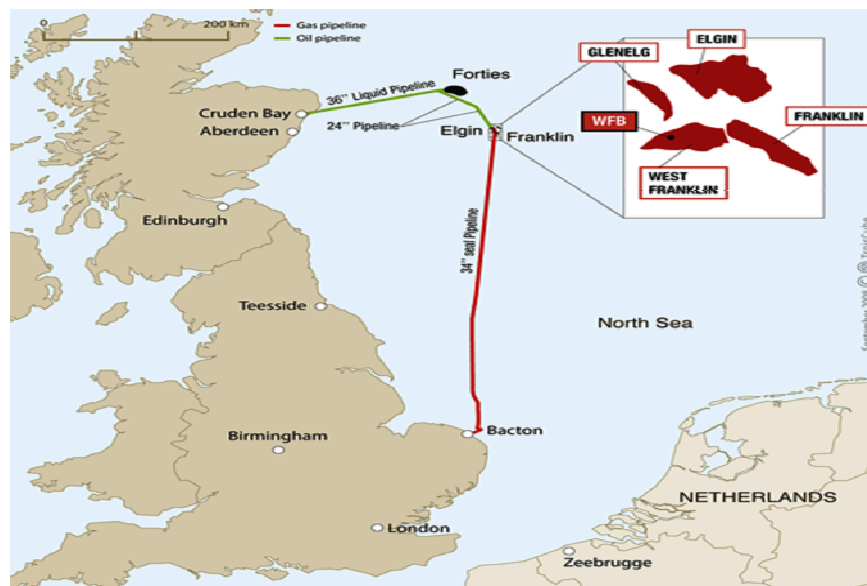
(Platts, 2008.9.8)

□ 영국 북해 West Franklin 유전의 추정매장량 증대



- Total은 영국 북해 Centrale 구역에 위치한 West Franklin B(WFB)의 평가 유정 시추 후에 West Franklin 유전의 추정매장량 증가를 발표함.
 - West Franklin 유전은 '03년에 발견되었으며, Aberdeen의 동부에서 약 240km 떨어진 광구 29/5b 및 29/4d에 위치함.
 - Total은 Elgin Franklin Oil & Gas(Total E&P UK Ltd. 35.784%, GDF Suez 10,389%), Eni UK Ltd., BG Group, E.ON Ruhrgas UK North Sea Ltd., Chevron, ExxonMobil, Dyas & Oranje-Nassau를 대신하여 동 유전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분은 35.784%임.
- West Franklin 유전은 시범적으로 가스 98.5만 m^3/d 와 콘덴세이트 314 m^3/d 를 생산하였으며, 가스의 최대 생산량은 260만 m^3/d 임.
 - 이번 시추로 West Franklin 유전의 추정매장량은 2억 배럴로 평가됨에 따라 추가적인 유정의 시추 필요성이 제기됨.
 - 이로써 Total의 영국북해 유전의 생산기간이 연장될 것이며, 영국에서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West Franklin 유전



(Total, 2008.9.10)



□ 영국, 프랑스 및 벨기에와 국가 간 송전망 확대 협의

- 영국 및 프랑스, 벨기에의 3개 전력 송전시스템 운영기업인 National Grid 및 RTE, Elia는 3개국 간 송전망연결 및 확대에 대해 논의하였음.
 - 영국과 프랑스는 제2의 송전망 구축 필요성에 대해, 영국과 벨기에는 1.3GW 규모의 신규 송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음.
 - 영국과 프랑스는 '86년부터 2GW 규모의 송전망을 운영해 왔으며, '01년 시장개방 이후 경매 형식으로 송전을 시행해 왔음.
- 이번 송전망연결 강화 논의는 유럽 지역에서 증가하는 전력수요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도 염두에 두고 있음.
 - EU는 27개 회원국에게 자국 내 발전 시설용량의 최소 10%를 국가 간 송전연결망에 할당하도록 하는 자발적 목표를 세운 바 있음.

(Platts, 2008.9.8)

□ 프랑스, 면세가구 대상 동절기 유류보조금 €200로 상향조정

- 프랑스의 재무장관 Christine LAGARDE는 '07~'08년 동절기에 €150의 유류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83만 면세가구를 대상으로 동 보조금의 혜택을 부여하였음.
 - 프랑스 정부는 총 €1.25억을 지원하였는데, LAGARDE 장관은 이러한 방안이 고유가로 인한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대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함.
- '08년 상반기에 국제 에너지가격이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프랑스 정부는 '08~'09년 동절기의 유류보조금을 €200으로 상향조정함.
 - 동 보조금은 '08년 7월~'09년 3월 사이에 중유를 구입하는 면세가구에 한정되는데, 상기 기간 내 가구당 1회 지원되며 '09년 1월 1일부터 은행대체를 통하여 지급될 예정임.
- '08년 5월에 프랑스 SARKOZY 대통령은 고유가로 인한 부수적인 수익으



로 특별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산업이나 계층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음.

- 프랑스 석유회사 Total은 지난 동절기에 이러한 유류보조금으로 €1.02억을 지원한 바 있음.

(France-Soir, 2008.9.10)

□ 독일, 온실가스 무배출 화력발전소 시범가동

- 스위스 에너지회사 Vattenfall은 독일의 Spremberg에 €4,000만을 투자하여 순 산소연소(oxyfuel) 및 CO₂ 지하매장 방식을 이용하는 Schwarze Pumpe 석탄 화력발전소를 9일에 시범적으로 가동함.
 - 동 발전소는 100% 산소상태에서 연료를 태우며, 연소과정에서 분리·압축이 진행되어 CO₂만이 추출됨.
 - Schwarze Pumpe 발전소에서 배출된 CO₂는 350km 떨어진 독일의 북부 지역 지하가스층에 매립·저장될 것임.
 - '2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할 예정인 독일은 Vattenfall의 최대 전력생산 지역으로, 20여 개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이미 예정되어 있음.
- 그러나 환경단체 및 그린피스는 순산소연소 기술은 발전량에 비례하는 석탄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는 비용급등 및 발전소의 실현성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함.

(AFP, 2008.9.9)

□ 독일, 일부기업에 탄소배출권 무상분배 요구

- 독일의 환경부 Sigmar Gabriel 장관과 제철부문의 IG Metall 조합은 독일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EU의 탄소배출권에 관한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이 성명은 사업의 특성상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고 경쟁이 치열한 부문의 기업들에게 투명하고 논리적인 기준에 의거하여 탄소배출권 유상분배 추



진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EU는 온실가스 배출량감축을 위하여 현재 12만 개의 기업에 무상으로 분배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13년부터 유상 분배하도록 하는 계획을 '08년 1월에 발표한 바 있음.
- 그러나 독일 및 프랑스의 여러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구입으로 인한 초과경비가 아시아기업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AFP, 2008.9.10)

□ 스페인, 자국 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 추진

- Suntech 기업과 Extremadura 주정부는 €2,500만을 투자하는 100MW급의 스페인 국내 최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음.
- 상기 태양광발전 추진은 다음 주 예정의 “태양광발전 수요 및 생산에 대한 칙령” 승인에 달려 있음.
- 태양광발전의 경제성은 '12년 화석에너지의 경제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음. 이 경우 태양광발전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만으로 경쟁력을 지닐 수 있음.
- 일조량이 특히 많은 천혜의 조건을 지닌 Extremadura州가 태양광발전소 건설의 최적 입지로 추진되고 있음.
- 이미 Extremadura州는 350MW의 태양광 전력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태양광발전의 30%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분야에서는 국내 선두를 달리고 있음.

(Europa Press, 2008.9.9)

□ 모리셔스의 파력발전 계획

- 모리셔스는 해안가를 따라 설치한 부표를 이용하여 국가 전력수요의 50%를 파력발전으로 충당할 계획임.
- 직경 7m의 부표가 심해 3m 깊이로 설치되는데, 파랑의 운동 이용과 고압



의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육상으로 내보내면서 발생하는 낙차로 전력을 생산함.

- 동 파력발전 기술은 호주 CETO Wave Energy Technology가 개발 중이며, 프랑스 EDF는 적도 북부에서 동 기술을 시험하기 위하여 상기 회사로부터 기술 사용권을 구입함.
- 모리셔스 정부는 자국의 지리적 위치가 동 기술의 효율성을 입증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강조함.
- 면적 1헥타르당 25MW급 전력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며, EDF는 5개 부지에 총 200MW급 부표를 설치할 예정임.
- 동 발전규모는 모리셔스의 전력수요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발전 비용은 풍력발전과 동일함.

(Enerzine, 2008.9.9)

□ 세르비아 의회, 러시아와의 에너지협정 승인

- 세르비아 의회는 지난 5월 체결된 러시아와의 에너지협정을 승인하였음.
- 동 협정에 따르면 러시아의 Gazprom Neft는 세르비아 국영 석유·가스기업인 NIS의 지분 51%를 \$5.9억에 매입하고, 세르비아의 가스저장 시설에 대한 일부 지분을 양도받기로 하였음.
- 한편 세르비아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South Stream 가스파이프라인의 통과국으로 참여하기로 하였음.
- 이를 통해 세르비아는 통과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동 협정의 승인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와 러시아간 협정 이행에 차질이 발생할 전망이다.
- 최근 조사에 따르면 NIS의 시장가치는 총 \$31억으로 나타났으며, 이 경우 러시아가 51%의 지분에 대해 제시한 \$5.9억은 매우 낮은 수준인 바 세르비아 측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Platts, 2008.9.9)



□ 아프리카의 에너지부문 협력 증대

- 가봉 정부는 아프리카 에너지위원회(African Energy Commission, AFREC)의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아프리카의 에너지부문 협력이 더욱 긴밀해질 전망이다.
- AFREC은 아프리카 국가간 탄화수소 및 에너지거래 촉진을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산하기관으로, AFREC을 통하여 역내 에너지부문의 통합 서비스 및 협력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 OPEC 회원국인 알제리와 리비아, 앙골라, 나이지리아가 포함된 AFREC의 창설에 대한 협약은 '01년 7월 잠비아에서 이미 체결되었으나, AU의 23개 회원국의 비준과정에서 6년이 소요됨. AFREC의 창설년도는 '08년 2월 16일이며, AU는 '02년 7월 9일임.
- 아프리카 국가들은 '80년대부터 에너지부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고 '80년 4월에 나이지리아의 Lagos에서 개최된 첫 번째 회담에서 역내 주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중기·장기적 방안을 제시한 'Lagos 행동강령'을 승인한 바 있음.
- 또한, 아프리카 원자력위원회(AFCONE)는 AFCONE가 설립된 남아공의 Pelindaba의 지명을 딴 Pelindaba 조약으로 '96년에 아프리카 대륙 및 주변지역을 비핵지대로 선포한 바 있음.

(Le Potentiel, 2008.9.8)



1. OPEC, 9월 정례회담에서 생산량 감축 결정

□ 개요

- OPEC은 9월 9~10일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정례회담에서 OPEC 생산량을 약 52만b/d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음.

□ 세부 내용

- OPEC은 9월 10일 비엔나에서 개최된 OPEC 정례회담에서 생산량 감축을 결정하였음.
 - 이번 감축은 유가 급상승으로 증가한 OPEC의 비공식 생산량을 기존의 생산목표량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며, 이는 약 52만b/d가 될 것임.
 - OPEC의 생산 상한선 역시 2,967만b/d에서 2,880만b/d로 낮춰짐.
 - 또한 OPEC은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인 앙골라 및 에콰도르에도 생산 할당량을 부과하였음.
 - OPEC의 추산에 따르면 OPEC의 생산량은 목표량 보다 약 79만b/d가 높은 수준이었으며,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추가 생산해 왔음.
 - 사우디아라비아 측은 공식적 입장을 밝힌 바 없으나, 수요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일 경우 생산량을 기존 수준인 970만b/d로 유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였음.
 - 한편 러시아는 9월 10일 OPEC과 정기회담 개최를 제안하고 향후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의 초안을 OPEC 사무총장에게 전달하였음.
 - 러시아는 그 동안 OPEC 회담에 옵저버 자격으로 참가해 왔으며, 동 양해각서는 이번 9월 정례회담에서 전달되었음.
 - 이에 대해 OPEC 사무총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러시아가 OPEC 주요 인사들을 10월에 러시아로 초청하는 제안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짐.
- ※ 러시아는 그루지야 전쟁 등으로 러시아-서방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OPEC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사점

- OPEC이 생산량을 감축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IEA의 세계 석유수요 감소 전망 및 지정학적 불안 요인의 완화로 유가가 급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OPEC-러시아간 정기회담이 성사될 경우 향후 세계 석유수급 조절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Reuters, 2008.9.1)

2. 이라크, Shell의 Basra지역 수반가스 프로젝트 승인

□ 개요

- 이라크 정부는 Royal Dutch Shell에 이라크 남부 Basra에서 부수천연가스를 포집 및 자본화하는 \$30~40억 상당의 프로젝트를 승인함.

□ 세부 내용

- 이라크 정부는 Shell에 이라크 남부 Basra에서 부수천연가스 1,420만~1,700만 m^3/d 를 포집하기 위해 \$30~40억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Iraq Gas Master Plan을 승인함.
 - 각료회의는 특별 회기를 통해서 Shell의 이라크 남부 Basra에서의 천연가스 수반 석유시추투자자에 대한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승인한 것임.
 - 해당 지역에서 그대로 연소시켜 버리는 가스의 양은 2,100만 m^3/d 로, 이라크 전체 발전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함.
- 이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 실행을 위하여 이라크 국영 석유기업 South Oil Co.(SOC)는 Shell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가스 포집, 처리 및 자본화(monetization)할 것임.
 - 이 합작회사의 지분구조는 SOC 51%, Shell 49%임.



- 포집된 가스의 대부분은 이라크 국내 에너지산업에서 사용될 계획이지만, 일부는 Basra에서 좀 떨어진 해상액화시설을 통해 LNG로 수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 시사점

- 이 계약에 의해 이라크는 그동안 기반시설과 노하우도 없고, 안보를 이유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연소시켜 버린 수반가스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됨.
- Shell은 동 계약을 통해 이라크 남부에 진출함으로써 Kirkuk 지역과 Missan 州에서의 수반가스 생산과 관련한 계약에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OIL&GAS JOURNAL, 2008.9.8, ViewsWire, 2008.9.9)

3. 베네수엘라, PDVSA의 LNG 프로젝트 추진 동향

□ 개요

-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는 '08년 5월 베네수엘라 동부 Sucre 州 Giria 市 소재 Cigma LNG 플랜트를 건설하여 '14년 LNG 수출을 목표로 하는 Gran Mariscal de Ayacucho(Cigma) 프로젝트를 실시하겠다고 밝힘.

□ 세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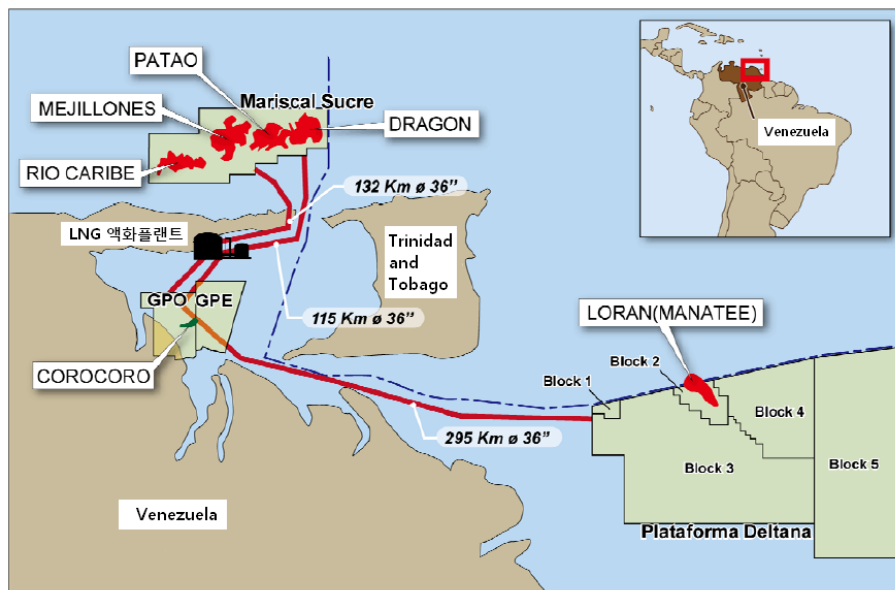
- PDVSA가 2개의 트레인을 건설할 계획인 바, 제1 트레인인 Chevron이 개발 중인 Plataforma Delatana Block 2의 Loran 가스전에서, 제2 트레인인 Mariscal Sucre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공급할 예정임.
- 액화설비능력은 제1 트레인, 제2 트레인 각각 연간 470만 톤이며, 사업 비용은 가스전 개발에 \$30억, 파이프라인 건설에 \$13억, 총 건설비용으로 \$73억을 투자할 예정임.
- 사업참여 비율은 PDVSA가 60%, 포르투갈의 Galp가 15%, 아르헨티나



국영석유회사 Enarsa가 10%로 되어 있으며, 추가로 Chevron, Shell, StatoilHydro, Sonatrach, QatarGas의 참가를 검토 중임.

- PDVSA는 미국, 유럽, 아시아뿐만 아니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여러 국가로도 LNG를 공급할 계획임.

베네수엘라 LNG 프로젝트



- 한편 PDVSA는 2월에 Orinoco 지구의 Carabobo 제1 광구 개발에 관해서 입찰 계획을 발표했지만 6월에 들어가서는 Carabobo 제1 광구뿐만 아니라 Carabobo 제2 광구, 제3 광구 입찰도 실시할 것을 밝혔다.
- 또한 PDVSA는 국영 석유회사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온 Orinoco 지구의 매장량 평가작업을 곧 종료할 계획임.
- 베네수엘라 정부는 중국에서 유정 굴착장치를 도입하여 유전탐사를 실시하였지만, 에너지석유부 라미레즈 장관은 '07년 사실상 충분한 유정굴착장치의 확보부족으로 인해서 PDVSA의 조업정체가 생산차질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지속적으로 있는 것으로 밝힘.
- 동 정부는 또한 Machua 유전 입찰을 계획하는 등 탐사·개발 추진책을 택하고 있지만 차베스 대통령은 서비스 회사를 합작투자회사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



□ 시사점

- '07년 베네수엘라 천연가스 매장량은 세계 8위 규모로 5.15조m³ 정도가 확인되고 있으며 Plataforma Delatana 및 Mariscal Sucre에서의 개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열악한 투자환경 때문에 LNG 프로젝트 및 Orinoco 지구의 개발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향후의 추진상황이 주목됨.
(JOGMEC, 2008.7)

4. 프랑스 GDF Suez의 최근 사업동향

□ 개요

- 프랑스 국영 가스기업 GDF와 민간에너지기업 Suez의 합병이 '08년 6월 16일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GDF Suez는 러시아의 Gazprom, 프랑스의 EDF, 독일의 E.ON에 이어 전 세계 4위의 에너지회사로 부상하였음.
- GDF Suez는 유럽 에너지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세부 내용

- GDF Suez는 네덜란드 Nederlandse Aardolie Maatschappij BV(NAM)가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북해에 위치한 석유·가스전의 탐사 및 생산, 운송 지분을 €10.75억에 매입함.
- NAM의 생산규모는 연간 330만boe이며, 현재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5개 광구 및 추정매장량 규모가 상당한 광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 네덜란드 가스관 A6-F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동 가스관은 독일의 북해로부터 NOGAT 가스관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 또한 NOGAT BV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는데, 동 회사는 NOGAT의 가스 수송망을 보유 및 운영하고 있음.
- 이번 지분매입으로 GDF Suez는 네덜란드 북해의 탐사·생산부문을 주



도하게 되었으며, GDF Suez의 네덜란드에서의 보유량은 30% 증가하게 되었음.

- GDF Suez는 9월 5일, Senoko Power의 지분을 매입하는 계약을 약 \$25억에 싱가포르의 최대 발전회사 Temasek와 체결함.
 - 싱가포르의 에너지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Temasek은 3개의 전력회사를 민영화하였는데 Senoko는 2번째 민영화된 회사로 '07년 시장점유율은 30%이었음.
 - GDF Suez는 동 계약체결을 위한 컨소시엄의 지분 30%를 보유하고 있음.
 - Senoko는 British Gas에서 LNG 수입목적으로 싱가포르에 LNG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인데, 동 터미널의 구상 및 건설, 운영은 PowerGas 및 GDF Suez가 전담할 예정임.
- GDF Suez는 태국에서 가스발전소와 화력발전소를 Map Ta Phut 산업지역에 건설하여 '11년까지 발전용량을 약 50% 확대할 계획임.
 - GDF Suez의 자회사인 Glow Energy가 동 프로젝트를 시행할 것이며 정확한 투자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음.
 - 가스발전소의 규모는 382MW로 '08년 8월에 착공, 115MW급의 화력발전소는 '09년 말에 가동될 예정임.
 - 가스발전소의 전력 70%와 화력발전소의 전력 100%가 이미 판매된 상황임.
- Glow Energy는 태국발전청(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EGAT)과 25년간 660MW의 전력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 시사점

- 세계 4위의 에너지기업인 GDF Suez는 회사의 세력 확장을 위하여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통하여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감소를 희망하고 있음.



(GDF Suez, 2008.9.9)

5. 스페인, Castilla La Mancha州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력공급

□ 개요

- 스페인 산업에너지환경위원회는 '12년까지 Castilla la Mancha州 지역에 현재 53%인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100%로 공급할 방침이며 전력공급 및 효율성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발표함.

□ 세부 내용

- 스페인은 Castilla la Mancha州에 태양 및 풍력에너지를 개발하여 100% 신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공급할 계획을 수립,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 이를 위해 산업관광무역부 산하의 에너지개발 및 다원화연구원(IDAE)과 협력,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하여 €80백만을 투자할 계획임.
 - 또한, 전력공급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 '10년까지 기간산업에 €1억을 투자할 예정임.
- Castilla la Mancha 지역은 현재의 53%인 신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을 앞으로 100%로 공급하게 될 것이며, 최종목표는 전력의 품질보장 및 현재 경제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석유 또는 가스와 같은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는 것임.
 - 이는 이번 달 정부의 CO₂ 배출감축을 위한 기후변화협약 대응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Castilla la Mancha 지역은 에너지소비보다 에너지생산이 더 많은 순자급 지역이므로 신재생에너지 소비 및 생산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지닌 곳임.
 - 동 지역은 국가 에너지의 11.37%를 생산하나 단지 4.68%만 소비하여 국가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음.



스페인 Castilla la Mancha 지역



- Castilla la Mancha 지역은 Puertollano에 유럽의 기준이 되고 있는 태양 전지시스템연구소가 설립된 곳이며 이를 중심으로 다수의 태양광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음.
 - 동 프로젝트를 통해 '07년도 태양광발전의 671%의 생산을 기록하였음.
 - 상기 연구소는 기존의 집열판 면적보다 더 감소된 면적에서 집광형 태양전지의 최대 효율을 달성하여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내는 집광에너지 연구에 힘을 쏟고 있음.
- 동 연구소는 또한 수소에너지를 미래 에너지원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수소에너지 전문연구소도 조만간 설립될 예정임.
 - 수소전지에 대한 연구가 이미 실용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상용화는 용이할 것으로 전망함.
 -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도 수소전지가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시사점

- 화석에너지로 인한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 에너지 문제



로 인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앞 다투어 뛰어들고 있는 이때에 스페인의 Castilla la Mancha 지역에서 100%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공급하는 정책은 시사하는 바가 큼.

- 스페인은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생산된 에너지의 품질 및 효율 개선이 그들에게 남은 과제임.
- 스페인의 이러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공급 성과가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모델로 삼아 세계 각국에서 상기 분야에 대한 더 많은 투자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전망됨.

(Europa Press, 2008.9.9)



미국 단기 에너지 수급 전망 보고서

□ 개요

- 미국 에너지부 산하 EIA는 국내외 에너지원별 수급 및 가격 등에 대한 전망을 다룬 단기 에너지 수급전망 보고서를 9월 9일 발표하였음.

□ 세부 내용

- 세계 석유수급 전망
 - 세계 경기침체와 러시아-그루지야 간 긴장상태 및 허리케인 구스타프와 같은 지정학적 사건으로 인한 석유수급 차질에 대한 우려와 달리 유가가 상승하지 않을 전망이다.

세계 석유수급 전망

(단위: 백만 b/d)

구분	2007	2008	2009
수요(A)	85.81	86.48	87.40
OPEC 공급(B)	35.42	37.25	37.73
비OPEC 공급(C)	49.02	49.03	49.92
공급(B+C)	84.44	86.28	87.65
재고변동	-1.38	-0.21	0.25

- 향후 유가는 세계 GDP 성장속도 및 OPEC의 행동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OPEC이 계속 시장상황을 평가하면서 유가의 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유생산을 줄일 것으로 전망됨.
- '08년 상반기 세계 석유소비는 전년 동기대비 37만b/d 증가였는데, 이는 석유소비성장이 부진한데 따른 것임.
- '08년 3/4 및 4/4분기 세계 석유소비증가는 OECD 국가의 소비감소전망에 따라 약 13만b/d가 될 것으로 예상됨.
- 2년간 OECD 국가의 석유소비 감소가 중국 및 중동, 남미, 인도와 같은 비OECD 국가의 소비증가를 상쇄시킬 전망이다.



- OPEC의 '08년 3/4분기 석유 생산량은 3,290만b/d로, 2/4분기 보다 60만b/d 증가할 전망이다.
- '08년 4/4분기와 '09년도 OPEC의 석유 생산량은 각각 3,280만b/d, 3,210만b/d로 감소할 전망이다.
- 비OPEC의 '08년 하반기와 '09년 증산량은 각각 30만b/d, 90만b/d로 예상됨.
- '09년에는 브라질 및 미국, 아제르바이잔의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 유가 전망
 - 국제 평균유가는(WTI 기준) '08년과 '09년에 각각 \$116/bbl, \$126/bbl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07년 휘발유 가격은 평균 \$2.81/gallon이었으나, '08년과 '09년에 각각 \$3.61/gallon, \$3.88/gallon으로 예상됨.
 - 경유가격 역시 개도국의 수요 증가로 '07년 \$2.88/gallon에서 '08년 \$4.09/gallon로 상승할 것임.
- 미국 석유수급 전망
 - 고유가 및 경제성장 둔화세 등으로 '08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대비 61만b/d 감소한 2,007만b/d, '09년에는 1,999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의 '08년 석유생산량은 513만b/d로 예측되며, '09년에는 Thunder Horse 및 Tahiti 플랫폼에서의 생산 개시로 542만b/d가 생산될 전망이다.
 - 에탄올 생산량은 '07년 43만b/d였으며, '08년과 '09년에 각각 59만b/d, 66만b/d로 증가할 것임.
- 천연가스 수급 전망
 - EIA는 '08년 미국의 천연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2.7% 증가한 18억 3,659만m³/d가 될 것으로 전망함.
 - 가정 및 상업 부문의 천연가스 소비는 예년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산업 부문의 소비는 증가 추세를 보여 '08년에 1.6% 증가할 전망이다.



- 미국의 '08년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18억 5,160만 m^3 /d에서 '09년에는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08년 걸프만에서의 생산량은 '07년보다 약간 밑도는 반면, Lower-48 지역의 비걸프만 지역의 생산량은 '08년 9.5% 증가할 전망이다.
- '08년 LNG 수입량은 LNG 가격이 강세인 아태지역 및 유럽지역으로 수출이 집중됨에 따라 감소할 것으로 보임.
- '08년 LNG 수입량은 총 99.1억 m^3 , '09년 LNG 수입량은 127.4억 m^3 이 될 전망이다.
- 천연가스 가격 전망
 - '08년 8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8.49/Mcf로, 이는 7월에 비해 거의 \$2.96/Mcf 하락한 것임.
 - 현물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적절한 기온과 생산량 증가 및 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08년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약 \$9.71/Mcf이 될 것으로 예측됨.
- 전력 수급 전망
 - 8월 기온이 최근 수년간 기온보다 낮았으며 '08년 전력소비 증가가 0.8%로 제한적일 것임.
- 전력가격 전망
 - 7월 초부터 전력가격을 인상한 전력회사들은 수개월 내에 추가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음.
 - '08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은 전년대비 5.8% 상승한 11.2¢/kWh, '09년에는 9.5% 인상된 12.3¢/kWh로 전망됨.
- 석탄수급 전망
 - '08년 미국의 석탄소비는 약 11억 3,760만 short ton, '09년 11억 4,060만 short ton을 기록할 전망이다.
 - 전력수요 증가의 둔화세로 발전부문 석탄소비 증가는 '08년 0.7%에 그



칠 것이며, 원자력 및 천연가스, 수력, 풍력 발전의 확대로 '09년 전력 부문의 석탄소비 증가세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 시사점

- '08년 국제 평균유가는(WTI 기준) \$116/bbl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에 비해 \$3 하향 조정된 것임.
- 고유가 및 경제성장 둔화세 등의 원인으로 '08년 미국의 석유소비는 전년 대비 61만b/d 감소한 2,007만b/d가 될 전망됨.
 - 이는 지난 8월 전망치 2,020만b/d에 비해 13만 b/d가 추가 하락한 수치임.
- '08년 8월 Henry Hub 평균 현물가격은 \$10/Mcf로, 이는 7월에 비해 거의 \$1.86/Mcf 하락한 것임.
 - 현물가격이 하락하는 원인은 온난한 기온과 생산량 증가 및 원유가격의 하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7월 초부터 전력가격을 인상한 전력회사들은 수개월 내에 추가 가격인상이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음.
 - '08년 가정용 평균 전력가격은 전년대비 5.8% 상승한 11.2 ¢/kWh, '09년에는 9.5% 인상된 12.3 ¢/kWh로 전망됨.

(EIA, 2008.9)